

보도 일시	2022. 12. 28.(수) 06:00 2022. 12. 28.(수) 석간	배포 일시	2022. 12. 28.(수)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부희 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 정경수 (044-202-7459)

5060 퇴직자에게 3,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

- 고용노동부, '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 안내 -

'22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사례

- ❖ 이○○씨(62세)는 11년간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중 서울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「ICT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」에 참여하게 되었다. 그는 ICT-HRD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고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. 그는 동 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○○여대 인공지능학과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.
- ❖ 정○○씨(60세)는 21년간 화훼·조경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중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「실내정원관리사」에 참여하게 되었다. 중소기업·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 및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내 정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. 실내정원 관리사라는 새로운 직무에서의 일 경험을 쌓은 그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'오피스가드너 양성과정'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.

50~69세 미취업자 3,000명에게 '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.

고용노동부는 '23년도 「신중년 경력형 일자리」(이하, '경력형 일자리')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
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~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, '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,000명 규모로 추진된다.

* '22년은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 3,515명 참여

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, 산업안전 컨설팅, 소상공인 금융상담, 드론 환경감시단, 귀농·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,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.

만 50~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.

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, '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'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 워크넷 홈페이지(www.wokr.go.kr/senior) 내 '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'에서 사업내용,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.

<주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례>

지자체	사업내용	참여자격	인원
부산광역시	환경오염, 재난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	드론조정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 자격증 2종 이상 보유자	25명
대구광역시	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	인사노무, 경영 등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	60명
충청북도	과학기술인 활용 중소기업 R&D 역량 강화 지원사업	과학기술 R&D 분야 3년 이상 전문 경력자	35명
강원도	숲 해설을 통한 환경교육 및 산림치유 사업	숲 해설사,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	61명
경상남도	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난방기 분해 청소 서비스 등 제공	가전·기계 분야 산업 현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증 보유자	31명

한편, '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.

* '21년 참여자 3,089명 중 1,015명이 사업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재취업하여 근무중

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,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

한편,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“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사업 목적

-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

* 근거법령: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5조, 제28조,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 제11조의 4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규모) '23년 3,000명 257억원
- (시행주체) 지방자치단체(자치단체경상보조)

* 국비보조율: 50%<서울(광역) 30%>

- (지원대상)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*

*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

- (수행기관) 공공·행정기관, 비영리법인·단체, 사회적기업 등
- (참여분야) 경영전략, 마케팅, 재무회계금융,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
- (지원수준) 최저임금 이상 임금*(주휴, 연차 포함) 지급, 4대 사회보험 가입

*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

□ 지원체계

